

FTA 체결국 수입제품 소비자의 후생수준에 관한 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Statistics analyze on Consumer Welfare Level of Import Product in FTA Countries

이제홍(Je-Hong Lee)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론 및 시사점 |
| II. 이론적 연구 | 참고문헌 |
| III. FTA 체결국 수입제품 후생분석 | Abstract |

국문초록

FTA 체결국 제품의 관세인하로 수입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또한 관세가 인하됨으로써 국내소비자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관세인하분 만큼의 후생이 소비자에게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FTA 체결 국가의 제품구매와 FTA 체결국 제품의 구매이유를 분석한 후,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자후생을 분석하여 통상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FTA 체결국가에 제품의 후생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보통이라는 결론을 많이 나타냈으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일한 후생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FTA, 관세인하, 수입제품, 소비자 후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I. 서론

현재 한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등 45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2012. 3월에는 터키와의 FTA 상품분야 협상이 마무리 되었고, 콜롬비아 등과의 FTA 협상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GCC, 멕시코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동아시아 내에서는 중국, 일본 등과의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도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FTA는 협정 당사국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무역 및 자본거래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시장확대와 시장 중심의 효율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FTA 경제적 효과를 보면 거시경제 효과측면에서 GDP 및 소비자 후생, 고용, 수출입 및 무역수지, 외국인 투자 등 전 부문이 FTA로 인한 효과가 증대할 것이다(지경부, 2012).¹⁾

아울러 FTA 체결국 제품의 관세인하로 수입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또한 관세가 인하됨으로써 국내소비자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관세인하분 만큼의 후생이 소비자에게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FTA 체결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거시경제적 측면 즉, 일반균형분석(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FTA가 국내 소비자에게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후생을 측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FTA 체결 국가간 수입관세 철폐는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하락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가격과 품질이 수입국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연구가 정립되지 않았다. 특히, FTA 체결에 따른 후생증대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측면에서 제품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정성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FTA 체결 국가의 제품구매와 FTA 체결국 제품의 구매이유를 분석한 후,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자후생을 분석하여 통상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1) ○ (실질GDP) 단기적으로 0.02%, 장기적으로 5.66%(생산성 향상 고려) 증가
 ○ (소비자 후생) 단기적으로 5.3억불 증가(생산성증대 고려 시 322억불 증가)
 ○ (교역, 향후15년간) 對美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1.4억불, 對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27.7억불 확대
 ○ (고용) 35만명 증가 : 제조업(81.6천명 ↑), 서비스업(269.2천명 ↑)에서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농식품 가공산업 확대
 로 농어업 취업자 증가(0.5천명 ↑)
 ○ (외국인투자, 향후10년간) 연평균 23~32억불의 FDI 추가 유입

II. 이론적 연구

FTA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모형은 국가별, 산업별 통계를 이용하여 일반균형론적 관점에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다지역·다부분 CGE 모형이다. 부분균형분석모형에는 중력모형과 탄력성분석방법이 있다. 중력모형은 물리학의 개념을 도입한 이론으로 두 국가간 무역규모는 양국간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국가간 정상적인 무역규모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비교적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여 몇몇 소수의 내생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표준통계방법의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박성용·김석철, 2010, pp.130-131)

이시욱(2007, KDI)은 “시장개방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입관세의 변화가 제조업 개별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입관세율이 1% 하락할 경우 개별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 1.5% 상승함을 제시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1988-2005) 관세율이 1% 하락하면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1.2-1.6% 증가함을 제시하고 있다(서진고 외, 2008, KIEP). 산업연구원(2000)은 수입증가율 1% 상승시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0.19% 증가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원기·김봉기(2003)도 수입증가효과 분석에서 수입증가율 1% 상승시 해당 업종의 총요소생산성이 0.11% 증가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2010)에 따르면 한·EU FTA 이행은 우리나라 실질 GDP를 추가적으로 약 0.1%-5.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관세철폐에 따라 단기적(정태모형)으로 교역증대, 자원배분 효율 개선, 국내생산 증가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약 0.1%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기적(자본축적모형)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실질 GDP가 최대 5.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미아(2008)는 한국의 대 칠레 수출이 FTA에 따른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환율, GDP, 상대가격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한·칠레 FTA가 실제 한국의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칠레 FTA는 한국의 제조업 부문 수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진·김기홍(2009)은 한·칠레 FTA 효과를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관세인하에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과 아울러 수출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세의 점진적 인하는 IT 부문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IT 부문의 수출증대 역시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후생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잉여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모형이 있는데, 후생변화를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A. Marshall의 소비자 잉여와 J. Hicks의 소비자 잉여의 개념이 있다. 이의 측정을 위해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도입되기도 한다(Diamond et al., 1974).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후생변화를 추정하고 있다(Shoven et al., 1984).

우영국·홍성화(2011)는 소비행태를 이용한 판별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어떤 한 소비자가 소득이 전부 화폐인 경우에 만약 소득이 증가하고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했을 때, 이 소비자의 후생이 개선되었다고 사전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소득변화와 가격변화를 정확히 모를 때, 이 후생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체적으로 답을 할 수 없다. 약간의 소득 증가를 알고 있고 두 재화의 이 가격이 변화는 방향만을 알 때 후생개선 여부를 말할 수 없다. 반면 이 소비자의 소득이 전부 실물인 경우에는 어떠한가? 특히 약간의 소득 증가를 알고 있고, 두재화의 가격변화 방향을 알 때, 우리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 후생개선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기준연도 소비점을 이용한 판별방법과 둘째, 소비행태를 이용한 판별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엄영숙(2009)은 미국산 소고기 판매재개 발효 이후 BSE(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광우병) 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우려증가로 인한 쇠고기 수요감소에 따른 소비자들의 후생손실을 동등변화와 소비자잉여의 감소로 측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에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기록한 수입재개 발표 전·후의 쇠고기 구입량 변동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별 쇠고기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후생효과를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시점상 수입재개 발표 전에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던 BSE 위험에 대한 우려수준의 측정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평균적으로 3만원 정도의 후생손실을 가져올 BSE 위험인지의 변화를 수입재개 발표 후 수요함수에 기초하여 계산한 결과 발표전에 비하여 BSE 위험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엄영숙, 2009) 기존 연구들은 크게 실제 시장거래에 기초한 현시선호자료(revealed preference data)와 구매의도에 기초하는 진술 선호자료(stated preference data)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 연구들은 식품위험사고에 대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뒤 주관적 위험인지를 바꾸고 결과적으로 관련된 식

품의 소비를 회피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Smith et al., 1988; Foster and Just, 1989; Piggott and Marsh, 2004).

박성용·김석철(2010)은 FTA가 생산자 측면에서는 이익이 되는 분야와 피해를 보는 분야가 공존하지만 소비자측면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 FTA로 인한 관세인하는 생산자 잉여를 소비자잉여로 전환시키고, 정부의 관세수입도 소비자잉여로 전환시키며,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 잉여가 종전보다 증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FTA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소비자측면에서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은 향후 정부의 FTA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의 연구에서 FTA효과에 대한 반감요인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관세 감축으로 인하여 수입상품의 원가인하 폭은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이를 원가에 반영시키지 않고, 판촉비나 기타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상품의 국내시장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고급 포도주 등 일부 품목은 각 브랜드별 수입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쟁제한적인 유통구조는 수입상, 중간 유통상인 간 담합 등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점은 대부분 임대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어 유통업체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FTA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아울러 영세 수입상으로 난립으로 이들 수입상들이 수출상과의 과도한 구매경쟁으로 수입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비자의 의식 때문에 고가품 또는 명품인 경우에는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출업자가 오히려 가격을 인상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FTA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FTA 체결에 따라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변동 효과에 관한 연구로 송백훈(2010)은 중국과의 FTA는 한국 농산물 물가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렴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곡물의 국내 가격은 6%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육류와 낙농 제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육류제품은 미국, 유럽, 호주/뉴질랜드 산이 국내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치즈와 같은 낙농제품 또한 유럽제품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음으로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수입급 증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Ⅲ. FTA 체결국 수입제품 후생분석

1. 분석방법

본 연구는 FTA 체결국 수입제품의 국내소비자의 후생수준을 검토하는 연구로서 기초적 연구분석을 한다. 분석으로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며, 그리고 기술통계분석을 하여 인구통계적 변수들의 독립성이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각 변수항목에 대해 실제 관측된 빈도와 두 변수가 상호독립적인지 아니면 관련성을 갖는지 판단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다.

교차분석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여 귀무가설 채택 및 기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을 구한다. 교차분석은 명목자료를 이용하여 두 변수간의 상호관련성을 알려 보고자 할 때 이용된다. 교차분석에서 이용되는 검정통계량은 카이스퀘어(x^2)로서 이는 기대빈도와 실제빈도간의 차이에 의해서 계산된다. 기대빈도와 실제빈도 상의 일치정도를 적합도 (goodness of fit)라고 하며, 이는 x^2 값에 의해서 판단되며, x^2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으며, 커질수록 적합도가 떨어진다. 즉, x^2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다는 것은 기대빈도와 실제빈도간의 차이가 작다는 의미이며, 한편으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x^2 가 클수록 적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검정통계량인 x^2 값과 이에 의해서 나온 유의확률(p-value)을 보고서 집단간 차이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교차분석 결과 x^2 값이 커지면 기대치와 실제치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두 변수가 서로 상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교차분석에서 이용되는 x^2 검정은 자유도를 고려하여 x^2 값이 기각역, 즉, 상호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는 영역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x^2 = \sum (f_o - f_e)^2 / f_e$$

여기서 x^2 : 카이제곱
 \sum : 총합을 의미하는 기호
 f_o : 실제빈도
 f_e : 기대빈도

2. FTA 체결의 후생수준 효과

본 연구를 분석함에 있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후생수준 분석과 효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2010)²⁾의 연구에 따르면, 한·EU FTA 이행은 우리나라 실질 GDP를 추가적으로 약 0.1%-5.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관세철폐에 따라 단기적(정태모형)으로 교역증대, 자원배분 효율 개선, 국내생산 증가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약 0.1%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개발연구원(2006)³⁾의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이 경기도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CGE 분석에서 지역총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경기도의 실질 지역총생산은 증장기적으로 2.13-2.16% 향상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경기도의 실질 지역총생산은 6.22%-7.0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엄영숙(2009)⁴⁾ 연구는 미국산 소고기 판매재개 발효 이후 BSE(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광우병) 위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우려증가로 인한 쇠고기 수요감소에 따른 소비자들의 후생손실을 동등변화와 소비자잉여의 감소로 측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에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입재개발표 이후 소비자들이 느끼는 BSE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관찰이 가능한 보통수요함수로부터 지출함수를 회복하고 이론적으로 정확한 후생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라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변동 효과에 관한 연구로 송백훈(2010)⁵⁾은 중국과의 FTA는 한국 농산물 물가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렴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상과 같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통계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10.10.6, p.17.

3) 경기개발연구원, “한·미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6.12, p.106.

4) 엄영숙(2009),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발표에 따른 소비자 후생손실 측정”,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환경경제학회, 2009, pp.495-521.(Young Sook Eom, “Measuring Consumers’ Welfare Losses due to Announcement of Resuming US-Beef Imports”,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ume 18, Number 3, September 2009, pp.495-521.)

5) 송백훈(2010), “순차적 FTA: 한국의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pp.113-139,(Backhoon Song, Sequential FTA: Korea’s FTAs with China and Japan)

3. 연구 표본의 특징

본 연구는 한국과 FTA 체결국인 미국, EU, 칠레제품을 국내 사용자가 소비함으로써 나타나는 후생수준을 기술통계학적 분석을 하고 있다. FTA가 체결됨에 따라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된 수입제품 중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입업자와 중개상 그리고 판매상의 과잉이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FTA 결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FTA 체결국 제품의 후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은 설문지 분석의 가장 기초분석이라 할 수 있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중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40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30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15부는 부족한 답변이 많아 분석에서 제외 하였고, 그 중 총 285부를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설문지를 통해 표본의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자료 입력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12.0.을 통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응답자의 성별은 총 285명 중 남자 119명(41.8%), 여자 166명(58.2%)이 응답하였으며, 나이는 20대가 174명(6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50대가 57명(20%), 40대가 49명(17.2), 30대가 4명(1.4%), 60대가 1명(0.4%)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학생이 165명(57.9%), 주부가 34명(11.9%), 회사원 34명(11.9%), 자영업 28명(9.8%), 공무원 12명(4.2%), 기타 12명(4.2%)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국가의 수입제품에 대한 가격결정자가 누구인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정부가 73명(25.6%)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국내유통업자가 71명(24.9%), 수출업자가 57명(20.0%), 수입업자가 55명(19.3%), 국내판매상 29명(10.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FTA 체결국 제품을 구매한 이유로는 '가격'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132명(46.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품질' 때문에 구매한다 73명(25.6%), '디자인 및 외형' 때문에 구매한다 40명(14.0%), '편리성 및 실용성'이 34명(11.9%), '견고성' 때문에 구매한다 4명(1.4%), 보여주기 위해, 구매한다가 2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로는 '국내생산자'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고 198명(69.5%)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소비자'가 51명(17.9%), '국내판매상'이 22명(7.7%), '국내수입업자(유통업자)'가 13명(4.6%), 마지막으로 '정부'가 피해본다고 1명(0.4%)이 응답하였다. FTA 체

결에 따른 피해산업으로는 ‘농수축산업’이 258명(90.5)이 응답하여 농수축산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자 및 가전’이 11명(3.9%), ‘패션 및 의류’가 8명(2.8%), 자동차(부품) 5명(1.8%), ‘주방용품’이 1명(0.4%)이 응답하였다.

4. 교차분석

성별과 제품구매국가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남자 119명 중, 미국제품을 구매한 응답자는 80명(67.2%)이며, EU 제품 구매자는 20명(16.8%), 칠레 제품구매자는 19명(16.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는 166명 응답자 중 미국제품 구매자는 103명(62.0%), EU 제품구매자는 34명(20.5%), 그리고 칠레제품 구매자는 48명(16.8%)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보면 χ^2 값은 .877이며 자유도는 2이다. 또한 유의확률은 0.646로서 유의도가 0.005보다 크기 때문에 두 변수간의 상호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남여간 FTA 체결국가의 제품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나타난다. 즉, 남여집단에 따른 FTA 체결국가의 제품구매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따라서 남여간 FTA 체결국가의 제품구매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성별과 제품구매국가

	제품구매국가			총빈도
	미국	EU	칠레	
남자	80	20	19	119
	67.2%	16.8%	16.0%	100.0%
여자	103	34	29	166
	62.0%	20.5%	17.5%	100.0%
총빈도	183	54	48	285
	64.2%	18.9%	16.8%	100.0%

Pearson 카이제곱 .877(값) .645(유의확률, 양측검증)

연령에 따른 제품구매 국가의 교차분석을 보면, 20대가 174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 미국제품을 구매한 응답자가 119명(68.4%), EU 제품 구매자가 30명(17.2%), 칠레제품을 구매한 응답자가 25명(14.4%)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50대가 57명으로 응답하였는데, 미국제품 구매자가 31명(54.4%), 칠레제품 구매자가 14명(24.6%), EU 제품 구매자는 12명

(21.1%)이 응답하였다. 그다음은 40대가 49명이 응답하였는데, 미국제품 구매자가 31명(63.3%), EU 제품 구매자가 12명(20.4%), 칠레제품 구매자가 8명(16.3%)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보면 χ^2 값은 12.223이다. 또한 유의확률은 0.142로서 유의도가 0.005보다 크기 때문에 두 변수간의 상호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연령에 따른 FTA 체결국가의 제품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나타난다. 즉, 연령에 따른 FTA 체결국가의 제품구매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령간 FTA 체결국가의 제품구매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과 제품구매국가

	제품구매국가			총빈도
	미국	EU	칠레	
20대	119	30	25	174
	68.4%	17.2%	14.4%	100.0%
30대	2	2	0	4
	50.0%	50.0%	.0%	100.0%
40대	31	12	8	49
	63.3%	20.4%	16.3%	100.0%
50대	31	12	14	57
	54.4%	21.1%	24.6%	100.0%
60대	0	0	1	1
	.0%	.0%	100.0%	100.0%
총빈도	183	54	48	285
	64.2%	18.9%	16.8%	100.0%

Pearson 카이스케어 12.223(값) .142(유의확률, 양측검증)

직업에 따른 제품구매 국가의 교차분석을 보면, 학생이 165명이 응답하였는데 그 중에서 미국제품 구매 응답자는 114명(69.1%), EU 제품구매 응답자는 28명(17.0%), 칠레 제품 구매 응답자는 23명(13.9%)이며, 그 다음으로 주부로서 34명이 응답하였는데, 그 중 미국제품 구매당사자는 16명(47.1%), EU 제품 구매응답자, 칠레 제품 구매 응답자 모두 9명(26.5%)으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보면 χ^2 값은 14.959이다. 또한 유의확률은 0.134로서 유의도가 0.005보다 크기 때문에 두 변수간의 상호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직업에 따

른 FTA 체결국가의 제품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나타난다. 즉, 직업에 따른 FTA 체결국가의 제품구매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따라서 직업간 FTA 체결국가의 제품구매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업과 제품구매국가

	제품구매국가			총빈도
	미국	EU	칠레	
학생	114	28	23	165
	69.1%	17.0%	13.9%	100.0%
회사원	26	3	5	34
	76.5%	8.8%	14.7%	100.0%
공무원	7	3	2	12
	58.3%	25.0%	16.7%	100.0%
자영업	12	9	7	28
	42.9%	32.1%	25.0%	100.0%
주부	16	9	9	34
	47.1%	26.5%	26.5%	100.0%
기타	8	2	2	12
	66.7%	16.7%	16.7%	100.0%
총빈도	183	54	48	285
	64.2%	18.9%	16.8%	100.0%
Pearson Chi-Square 14.959(꺇) .134(유의확률, 양측검증)				

성별에 따른 제품구매이유의 교차분석을 보면, 남자 119명 응답자 중, ‘가격’ 때문에 구매한다가 51명(42.9%)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품질’이 34명(28.6%), 디자인 18명(15.1%), 편리성이 13명(10.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자 166명 응답자 중 ‘가격’ 때문에 구매한다가 79명(47.6%), ‘품질’이 39명(23.5%), 편리성이 25명(15.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본 교차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보면 x^2 값은 3.918이다. 또한 유의확률은 0.417로서 유의도가 0.005보다 크기 때문에 두 변수간의 상호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성별에 따른 FTA 체결국가의 제품구매이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나타난다. 즉, 성별에 따른 FTA 체결국가의 제품구매이유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따라서 성별에 따른 FTA 체결국가의 제품구매이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별과 FTA 체결국 제품 구매이유

	제품구매이유					전체빈도
	가격	품질	디자인	견고성	편리성	
남자	51	34	18	3	13	119
	42.9%	28.6%	15.1%	2.5%	10.9%	100.0%
여자	79	39	22	1	25	166
	47.6%	23.5%	13.3%	.6%	15.1%	100.0%
전체빈도	130	73	40	4	38	285
	45.6%	25.6%	14.0%	1.4%	13.3%	100.0%
Pearson Chi-Square 3.918(값) .417(유의확률, 양측검증)						

연령에 따른 FTA 체결국가의 제품구매 이유의 교차분석을 보면, 20대 174명 응답자 중 가격이 71명(40.8%), 품질(26.4%), 디자인 32명(18.4%), 편리성 순으로 제품구매 이유에 대하여 응답하였으며, 40대는 가격이 28명(57.1%), 품질이 12명(24.5%)이 응답하였으며, 50대는 20명이 가격 29명(50.9%), 품질이 14명(24.6%)이 순으로 FTA 체결국가 제품의 구매이유에 대해 응답하였다.

본 교차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보면 x^2 값은 17.308이다. 또한 유의확률은 0.633으로 유의도가 0.005보다 크기 때문에 두 변수간의 상호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연령에 따른 FTA 체결국가의 제품구매이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나타난다. 즉, 연령에 따른 FTA 체결국가의 제품구매이유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령에 따른 FTA 체결국가의 제품구매이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령과 FTA 체결국가 제품 구매이유

	제품구매이유					전체빈도
	가격	품질	디자인	견고성	편리성	
20대	71	46	32	3	22	174
	40.8%	26.4%	18.4%	1.7%	12.6%	100.0%
30대	1	1	0	1	1	4
	25.0%	25.0%	.0%	25.0%	25.0%	100.0%
40대	28	12	4	0	5	49
	57.1%	24.5%	8.2%	.0%	10.2%	100.0%

	제품구매이유					전체빈도
	가격	품질	디자인	견고성	편리성	
50대	29	14	4	0	10	57
	50.9%	24.6%	7.0%	.0%	17.5%	100.0%
60대	1	0	0	0	0	1
	100.0%	.0%	.0%	.0%	.0%	100.0%
전체빈도	130	73	40	4	38	285
	45.6%	25.6%	14.0%	1.4%	13.3%	100.0%
Pearson Chi-Square 17.308(값) .633(유의확률, 양측검증)						

FTA 체결 국가의 제품과 소비자 후생의 교차분석을 보면,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미국제품은 대체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보통이다가 제일 많은 75명(41.0%), 후생수준이 낮음이 50명(27.3%), 후생수준이 높음이 47명(25.7%)의 순으로 나타났다. EU 제품은 소비자 수행수준이 보통이다가 24명(44.4%), 후생수준이 낮음이 16명(29.6%), 후생수준이 높음이 11명(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칠레제품은 후생수준이 낮음이 16명(33.3%), 후생수준이 보통이다와 후생수준이 높음이 각각 15명(31.3%)으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보면 χ^2 값은 7.832이다. 또한 유의확률은 0.450으로 유의도가 0.005보다 크기 때문에 두 변수간의 상호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FTA 체결 국가의 제품에 따른 소비자 후생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나타난다. 즉, FTA 체결국 제품에 따른 소비자 후생수준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따라서 FTA 체결국가 제품에 따른 소비자 후생에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FTA 체결국 제품과 소비자 후생

	소비자 후생					전체빈도
	후생수준 매우 낮음	후생수준 낮음	보통	후생수준 높음	후생수준 매우높음	
미국제품	8	50	75	47	3	183
	4.4%	27.3%	41.0%	25.7%	1.6%	100.0%
EU제품	3	16	24	11	0	54
	5.6%	29.6%	44.4%	20.4%	.0%	100.0%
칠레제품	0	16	15	15	2	46
	.0%	33.3%	31.3%	31.3%	4.2%	100.0%

	소비자 후생					전체빈도
	후생수준 매우 낮음	후생수준 낮음	보통	후생수준 높음	후생수준 매우높음	
전체빈도	11	82	114	73	5	285
	3.9%	28.8%	40.0%	25.6%	1.8%	100.0%
Pearson Chi-Square 7.832(값) .450(유의확률, 양측검정)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교차분석을 보면,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119명의 남자 중 소비자 후생이 보통이다가 45명(37.8%), 후생수준이 높음에 응답한 응답자는 38명(31.9%), 후생수준이 낮음에 28명(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 응답자의 166명 중, 후생수준이 보통이다가 69명(41.6%), 후생수준이 낮음이 54명(32.5%), 후생수준이 높음이 35명(21.1%)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여성이 후생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후생수준이 높음으로 분석되었다.

본 교차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보면 χ^2 값은 6.126이다. 또한 유의확률은 0.190으로 유의도가 0.005보다 크기 때문에 두 변수간의 상호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성별에 따른 소비자 후생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나타난다. 즉, 성별에 따른 소비자 후생수준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따라서 성별에 따른 소비자 후생에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성별과 소비자 후생

	소비자 후생					전체빈도
	후생수준 매우 낮음	후생수준 낮음	보통	후생수준 높음	후생수준 매우높음	
남자	6	28	45	38	2	119
	5.0%	23.5%	37.8%	31.9%	1.7%	100.0%
여자	5	54	69	35	3	166
	3.0%	32.5%	41.6%	21.1%	1.8%	100.0%
전체빈도	11	82	114	73	5	285
	3.9%	28.8%	40.0%	25.6%	1.8%	100.0%
Pearson Chi-Square 6.126 4 .190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교차분석을 보면,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164명의

학생 중 소비자 후생이 보통이다가 64명(38.8%), 후생수준이 높음에 응답한 응답자는 45명(27.3%), 후생수준이 낮음이 44명(2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중 소비자 후생이 보통이다가 16명(47.1%), 후생수준이 낮다가 10명(29.4%), 후생수준이 높다 7명(20.6%)이며, 주부인 경우에는 후생수준이 보통이다가 14명(41.2%), 후생수준이 낮다가 14명(41.2%), 후생수준이 높다가 5명(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직업에 있어서 가정 주부가 후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보면 x^2 값은 20.262이다. 또한 유의확률은 0.442으로 유의도가 0.005보다 크기 때문에 두 변수간의 상호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직업에 따른 소비자 후생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나타난다. 즉, 직업에 따른 소비자 후생수준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따라서 직업에 따른 소비자 후생에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직업과 소비자 후생

	소비자 후생					전체빈도
	후생수준 매우 낮음	후생수준 낮음	보통	후생수준 높음	후생수준 매우높음	
학생	8	44	64	45	4	164
	4.8%	26.7%	38.8%	27.3%	2.4%	100.0%
회사원	1	10	16	7	0	34
	2.9%	29.4%	47.1%	20.6%	.0%	100.0%
공무원	0	2	7	2	1	12
	.0%	16.7%	58.3%	16.7%	8.3%	100.0%
자영업	1	9	11	7	0	28
	3.6%	32.1%	39.3%	25.0%	.0%	100.0%
주부	1	14	14	5	0	34
	2.9%	41.2%	41.2%	14.7%	.0%	100.0%
기타	0	3	2	7	0	12
	.0%	25.0%	16.7%	16.7%	.0%	100.0%
전체빈도	11	82	114	73	5	285
	3.9%	28.8%	40.0%	25.6%	1.8%	100.0%
Pearson Chi-Square 20.262(값) .442(유의확률, 양측검증)						

IV. 결론 및 시사점

FTA 체결국 제품의 관세인하로 수입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또한 관세가 인하됨으로써 국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관세인하분 만큼의 후생이 소비자에게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⁶⁾는 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인 FTA 관련 주요 소비재 22개 품목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총 15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하기도 했는데 그 원인은 작황 부진, 제품 업그레이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전동칫솔은 모니터링 대상인 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엠프 4000의 경우 제품사양 업그레이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가격 자체가 상승하여 소비자가격도 소폭 상승하였다. 그리고 위스키·맥주 등 주류는 가격변동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몰류비 등 원가 상승분이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FTA 체결국가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성별 중 남자 119명, 여자 166명의 응답자들은 FTA 체결국가의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미국, EU, 칠레 제품의 순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령별, 직업별 모두 성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로 구매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가 FTA 체결국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가격, 제품, 디자인, 편리성, 견고성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소비자 후생분석에서 보면,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119명의 남자, 여성 응답자의 166명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여성이 후생수준이 낮음에 응답이 많이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후생수준이 높음에 응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넷째, FTA 체결 국가의 제품과 소비자 후생분석을 보면, 미국제품은 대체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보통이다가 제일 많은 75명(41.0%)이 나타났으며, EU 제품은 소비자 수행수준이 보통이다가 24명(44.4%), 후생수준이 낮음이 16명(29.6%), 아울러 칠레제품은 후생수준이 낮음이 16명(33.3%)이 응답하였다. 국가별 후생수준을 보면 미국제품을 후생수준이 높게, 칠레제품은 후생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후생수준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후생수준이 낮음에 많이 응답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후생수준이 높음에 응답자가 많았다. 여섯째, 직업군에서 후생수준

6) 공정거래위원회, 2012.6.21.(목) 보도자료

을 보면, 학생은 대체적으로 후생수준이 높음에 응답한 반면, 가정주부는 후생수준이 낮음에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FTA 체결국가에 제품의 후생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보통이라는 결론을 많이 나타냈으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일한 후생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설문지 문항과 요인개발을 통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며, 요인개발과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를 완성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한-미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6.12, p.106.
- 김미아(2008), “한-칠레 FTA가 제조업 수출에 미친 효과”,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2호, 2008, pp.47-6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10.10.6, p.17.
- 박성용·김석철(2010), “FTA의 소비자후생 증대유형 및 사례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pp.127-149.
- 박혜진·김기홍(2009), “한국 IT 제조업에 있어서의 한-칠레 FTA이 경제적 효과분석: 탄력성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14권 제3호, 2009, pp.25-53.
- 송백훈(2010), “순차적 FTA: 한국의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pp.113-139,
- 엄영숙(2009),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발표에 따른 소비자 후생손실 측정”,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환경경제학회, 2009, pp.495-521.
- 우영국·홍성화, “소득계층별 후생개선 여부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3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pp.39-61.
- 지식경제부, 한미 FTA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지원방안, 2012.3.14.보도자료
- Diamond, P. A. & Mcfadden, D. L.(1974), “Some uses of the expenditure function in public fina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1, pp.3-21.
- Foster W. and R. E. Just(1989), “Measuring Welfare Effects of Product Contamination with

Consumer Uncertainty”,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17, 1989, pp.266-283.

Piggott, N. E. and T. L. Marsh(2007), “Does Food Safety Information Impact U.S. Meat Demand?”,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86(1), 2007, pp.14-175.

Shoven, J.B. & Whalley, J.(1984), “Applied general-equilibrium models of tax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 introduction and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2(3), pp.1007-1051.

Smith, M. E., Van Ravenswaay, E. O. and S. R. Thompson(1988), “Sales Loss Determination in Food Contamination Incidents: An Application to Milk Bans in Hawaii”,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0, 1988, pp.513-520.

ABSTRACT

Descriptive Statistics analyze on Consumer Welfare Level of Import Products in FTA Countries

Je-Hong Lee*

This article stands at the junction of two usually separate fields of study: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Consumer welfare. Conception of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is different depending of the scholars in each country.

This paper examines the consumer welfare level of import products in FTA countries. The results shows that FTA country products reaches the same welfare level in sexually, age and job.

This paper contributes to this issue by considering consumers that incur consumer welfare level with import products costs.

Key Words : International commerce, consumer welfare, import product, FTA country

* Professor a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osun University